

두렵고 불안하다면

1 찬양과 기도

- 찬양 : 새찬송가 278장 (여러 해 동안 주 떠나)
- 기도 : 성령님께서 말씀으로 조명하여 주시길 기도합니다.

2 성경본문 (우리말성경)

여호와를 두려워하지 않은 결과

58 만약 네가 이 책에 쓰여 있는 이 율법의 모든 말씀을 삼가 따르지 않고 영광스럽고 두려워할 이름, 네 하나님 여호와를 두려워하지 않으면 59 여호와께서 너와 네 자손들에게 무서운 재앙을 내리실 것이니, 곧 고통스럽게 계속되는 재앙, 극심하게 오래 가는 병마를 주실 것이다. 60 그분은 네가 두려워했던 이집트의 모든 질병들을 네게 내리실 것이고 그 질병들이 네게 붙을 것이다. 61 여호와께서는 네가 멸망할 때까지 온갖 종류의 아픔과 이 율법책에 기록돼 있지도 않은 재앙을 네게 내리실 것이다. 62 하늘의 별처럼 많았던 너희가 적은 수만 남게 될 것이다. 이는 네가 네 하나님 여호와께 순종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63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선을 행하시고 너희가 번창해 수가 늘어나는 것을 기뻐하셨듯이 그분은 너를 황폐화시키고 멸망시키는 것을 기뻐하실 것이다. 너는 네가 들어가 차지할 그 땅에서 뿌리째 뽑힐 것이다.

흠어지게 될 백성

64 여호와께서 땅 이쪽 끝에서부터 저쪽 끝까지 모든 민족들 가운데로 너를 흠으실 것이다. 거기서 너는 다른 신들을, 너나 네 조상들이 알지 못했던 나무와 돌로 만든 신들을 숭배할 것이다. 65 그 민족들 사이에서 너는 네 발바닥의 편안함도, 쉴 곳도 찾지 못할 것이다. 거기서 여호와께서 네게 염려하는 마음을 주시고 눈을 어둡게 하시고 또한 절망만을 주실 것이다. 66 너는 계속 마음이 조마조마하고 밤낮으로 공포에 시달리며 목숨을 이어갈 수 있을지 항상 불안하기만 할 것이다. 67 네가 아침에는 '저녁이었으면 얼마나 좋을까!' 하고 저녁에는 '아침이었으면 얼마나 좋을까!' 할 것이다. 네 마음을 가득 채울 그 공포와 네 눈이 보게 될 그 광경 때문이다. 68 여호와께서는 네가 다시는 가지 않을 것이라고 내가 말했던 그 이집트로 너를 배에 태워 보내실 것이다. 거기서 너는 남종과 여종으로 네 원수들에게 몸을 팔겠지만 아무도 너를 살 사람이 없을 것이다."

3 묵상하기

때때로 하나님을 따르고 말씀에 순종하는 삶이 우리의 본성은 물론 세상의 대세를 거슬러야 하는 괴로운 일처럼 느껴지곤 합니다. 순종하기 위해 세상을 따르지 않는 선택을 하다 보면 하나님과 말씀이 우리의 걸림돌, 혹은 자유를 옳아매는 사슬 같기도 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본문을 통해 순종이 오히려 “발바닥의 편안함”(65절)이고 우리가 “쉴 곳”(65절)임을 깨닫습니다. 하나님이 아닌 세상의 대세를 따르고 본능과 욕심을 채우며 사는 것이 당장은 자유이고 만족인 것 같지만 그 결과는 그토록 피하고 싶은 온갖 재앙과 멸망, 염려와 절망, 공포 같은 부정적인 것들입니다. 세상은 나에게 영원한 만족과 평안을 줄 것처럼 말하지만 결국 허무함과 염려만을 안겨줄 뿐입니다. 오직 하나님에게만 몸과 영혼의 영원한 평안과 쉼이 있습니다.

4 적용하기

많은 사람이 인생의 의미와 방향을 찾아 헤맵니다. 돈을 많이 벌면, 인기가 많아지면, 즐기면서 살면 행복할 것이라고 생각해 거기에 인생을 걸기도 합니다. 하지만 이것들은 일시적일 뿐 결국에는 허무함과 무기력함을 안겨줄 뿐입니다. 혹시 나도 그런 것들에서 인생의 해답을 찾고 있었다면 이제는 방향을 돌이켜야 합니다. 영원한 만족과 평안은 주님 안에서만 가능합니다.

5 생각하고 나누어보기 (각자의 삶을 서로 나눠 봅니다)

- ① 하나님의 자녀인 나는 하나님만을 두려워하고 그분의 말씀만을 따라합니다.
지금 나는 무엇을 두려워하고 무엇을 따라가고 있나요?
- ② 요즘 내 마음이 막연한 두려움과 허무함으로 가득하다면, 그 이유는 무엇이고 어디에서 해답을 찾아야 할까요?

6 기도하기

- ① 기도제목을 나누고 함께 기도합니다.
- ② 주님만이 저의 쉴 곳을 고백합니다. 주님께 꼭 붙어서 주님을 누리는 오늘을 살기 원합니다. 예수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 ③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로 마칩니다.

1 찬양과 기도

- 찬양 : 새찬송가 445장 (태산을 넘어 험곡에 가도)
- 기도 : 성령님께서 말씀으로 조명하여 주시길 기도합니다.

2 성경본문 (우리말성경)

모압에서 언약을 맺음

1 이것은 이스라엘과 호렙 산에서 맺으신 언약 외에 여호와께서 모압에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맺으려고 모세에게 명령하신 언약의 말씀들입니다.

과거를 상기시킴

2 모세가 온 이스라엘 백성들을 불러서 말했습니다. “여호와께서 이집트 땅에서 바로에게, 그의 모든 신하들에게 그의 온 땅에서 하신 모든 것을 너희의 눈으로 보았으니 3 이는 곧 너희 두 눈으로 똑똑히 본 큰 시험들과 이적들과 놀라운 기사들이다. 4 그러나 오늘날까지 여호와께서는 너희에게 깨닫는 마음이나 볼 수 있는 눈이나 들을 수 있는 귀를 주지 않으셨다. 5 여호와께서 너희를 광야에서 이끌고 다니신 그 40년 동안 너희 옷은 해지지 않았고 너희 발의 신발도 닳지 않았다. 6 너희는 빵을 먹지 않았고 포도주나 다른 술을 마시지도 않았다. 여호와께서 이렇게 하신 것은 주께서 너희 하나님 여호와임을 알게 하려는 것이었다. 7 너희가 이곳에 다다랐을 때 헤스본 왕 시혼과 바산 왕 옥이 우리와 싸우려고 나왔으므로 우리는 그들을 물리쳤다. 8 우리가 그들의 땅을 차지했고 그 땅을 르우벤 사람들과 갓 사람들과 므낫세 반 지파 사람들에게 기업으로 주었다. 9 이 언약의 말씀들을 지켜 행하라. 그러면 너희가 하는 모든 일이 잘될 것이다.

3 묵상하기

하나님의 은혜는 모든 순간 모든 사람을 향해 있지만, 그 은혜를 누리고 있는 모든 사람이 깨닫고 감사하는 것은 아닙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 생활 40년 동안 먹여주시고 입혀주시고 적들을 물리쳐주신 은혜와 기적들을 경험하고도 눈과 귀가 어두워 주님을 깨닫지 못했던 것처럼 말입니다(4절). 모세는 광야 생활 40년을 힘겨운 방황의 역사로 기억하는 그들에게 다시 과거를 되짚어주며 하나님을 제대로 가르쳐 주려 합니다. 그분의 약속과 말씀을 믿고 따르는 것만이 이스라엘이 사는 길이기 때문입니다. 백성의 은혜를 향한 모세의 이 간절함은 오늘 나를 향한 것이기도 합니다. 그 옛날 성경 속에서 역사하신 하나님은 지금 내 삶에도 역사하고 계십니다. 이스라엘처럼 나의 걸음, 나의 역사도 그분의 손에 붙들려 있을 때 아름다운 은혜의 발자취가 됩니다.

4 적용하기

혹시 지금 당장 눈에 보이는 현실 때문에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해 순종하지 못하고 있는 것은 아닌가요? 그럴 때 믿음을 회복할 좋은 방법은 모세가 백성에게 그랬듯이 지금까지 받은 하나님의 은혜를 돌아보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나의 역사에는 어떤 은혜, 어떤 기적이 있나요? 그것을 돌아보고 다시 한번 되새기며 내 인생의 주인이신 주님을 더욱 붙들게 되기를 기대합니다.

5 생각하고 나누어보기 (각자의 삶을 서로 나눠 봅니다)

- ① 하나님께서는 지금까지 나를 어떻게 인도해 오셨나요? 지나온 시간들을 돌아보며 하나님의 은혜를 되새기는 시간을 가져보는 것은 어떨까요?
- ② 나의 영적 상태는 어떠한가요? 지금도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 안에 있지만 이스라엘처럼 눈과 귀가 어두워져 여전히 깨닫지 못하는 상태는 아닌가요?

6 기도하기

- ① 기도제목을 나누고 함께 기도합니다.
- ② 지금까지 그러셨듯 지금도, 앞으로도 함께하실 주님을 찬양합니다. 경배합니다.
예수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 ③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로 마칩니다.

1 찬양과 기도

- 찬양 : 새찬송가 546장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 서)
- 기도 : 성령님께서 말씀으로 조명하여 주시길 기도합니다.

2 성경본문 (우리말성경)

다시 세우는 언약

10 오늘 너희 모두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가 계시는 곳에 서 있으니, 곧 너희 지도자들과 우두머리들과 너희 장로들과 관리들과 다른 온 이스라엘의 모든 사람과 11 너희 자식들과 너희 아내들과 너희 진영 안에 살면서 너희 나무를 패고 너희 물을 길어 오는 이방 사람들이다. 12 이 모두가 네 여호와 하나님의 언약에 참여하며 또 여호와 하나님께서 오늘 너와 함께 맺는 맹세에 참여해 13 네게 맹세하셨던 대로 또 네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하셨던 대로 그분께서 오늘 너를 세워 백성으로 삼으시고 그분은 네 하나님이 되시려는 것이다. 14 내가 이 언약을 맹세로 너희와 세우되 15 오늘 우리와 함께 우리 하나님 여호와 앞에 서 있는 사람들뿐 아니라 우리와 함께 오늘 여기 있지 않는 사람들과도 맺으시는 것이다.

다른 신들에게 경배하지 말라

16 너희는 우리가 이집트에서 어떻게 살았는지, 우리가 여기까지 여러 민족들을 어떻게 통과해서 왔는지 스스로 잘 알고 있을 것이다. 17 너희가 그들 가운데서 가증스러운 형상들과 나무와 돌과 은과 금으로 만든 우상들을 보았으니 18 너희는 명심해 남자나 여자나 일족이나 지파나 오늘 너희 가운데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마음이 떠나 다른 민족들이 섬기는 신들에게로 가서 경배하는 일이 없도록 해야 한다. 또한 너희 가운데 독초와 썩을 만들어 내는 뿌리가 있어서는 안 된다. 19 그런 사람은 이런 저주의 말을 듣고도 스스로를 축복하며 '내가 내 마음의 상상대로 해 죄악을 물같이 마실지라도 내게 평안이 있을 것이다' 할 것이다. 20 여호와께서는 결코 그를 용서하지 않으실 것이며 그분의 진노와 그분의 질투가 그 사람을 향해 불타올라 이 책에 기록된 모든 저주들이 그에게 떨어질 것이고 여호와께서는 그 이름을 하늘 아래에서 지워 버리실 것이다. 21 여호와께서 온 이스라엘 지파 가운데 그를 뽑아내어 이 율법책에 기록된 언약의 모든 저주들에 따라 그에게 재앙을 내리실 것이다.

3 묵상하기

하나님께서서는 출이집트 1세대와 맺은 언약을 그들의 2세대들과 다시 맺으시려고 모두 모압으로 부르십니다. 이때 부르신 이들은 순수 이스라엘 혈통만이 아닙니다. 사회적 신분, 종교적 신분, 남녀노소, 민족 등을 초월해 이스라엘 공동체 안에 있는 모든 사람 (10-11절), 그리고 시간과 공간을 초월해 하나님만을 섬기기로 결단하고 나아오는 모든 사람이 여기에 포함됩니다(15절).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조건 없이 하나님의 언약을 믿고 나아오는 모두를 백성으로 받아주십니다. 하지만 그분의 백성이라고 해도 백성답게 살지 못하면 심판을 피할 수 없습니다. 주의 백성이 되기로 한 약속을 어기고 백성으로서의 정체성을 잃었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내가 한 번 받은 구원의 은혜를 끝까지 붙들고 지켜야 하는 이유입니다.

4 적용하기

“나는 교회 다녀”, “나는 하나님의 자녀야” 라고 말한다고 해서 모두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은 아닙니다. 자녀라면 자녀다워야 합니다. 하나님보다는 하나님과 반하는 세상의 것들을 따르고 거기에 열광하면서 말로만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것은 아닌가요?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나의 정체성을 지켜가고 있는지 이 말씀을 통해 점검해 보기 바랍니다.

5 생각하고 나누어보기 (각자의 삶을 서로 나눠 봅니다)

- ① 나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자녀의 정체성을 잘 지켜가고 있나요? 나의 아버지보다 다른 것을 더 따르고 있었다면 그것은 무엇인가요?
- ② “어릴 때부터 교회 다녔으니까”, “매주 예배드리니까” 라는 사실만으로 나는 하나님의 자녀라고 막연하게 생각하고 있던 것은 아닌가요?

6 기도하기

- ① 기도제목을 나누고 함께 기도합니다.
- ② 하나님의 언약 백성답게, 자녀답게 구별된 모습으로 오늘을 살기 원합니다.
예수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 ③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로 마칩니다.

1 찬양과 기도

- 찬양 : 새찬송가 286장 (주 예수님 내 맘에 오사)
- 기도 : 성령님께서 말씀으로 조명하여 주시길 기도합니다.

2 성경본문 (우리말성경)

하나님의 진노에 대한 물음

22 다음 세대의 너희 자손들과 먼 땅에서 오는 이방 사람들이 그 땅에 떨어진 재난과 여호와께서 내리신 질병들을 볼 것이다. 23 그 온 땅이 소금과 유황으로 타서 재가 돼 심은 것도, 싹이 난 것도, 그 위에 자라난 것도 없을 것이다. 그것은 여호와께서 무서운 진노로 던져 버리신 소돔과 고모라의 멸망과 같고 아드마와 스보임의 멸망과도 같을 것이다. 24 모든 민족들이 물을 것이다. '여호와께서 이 땅에 왜 이런 일을 행하셨는가? 왜 이토록 무섭게 진노하시는가?'

심판의 이유를 대답함

25 그때 사람들이 대답할 것이다. '이 백성들이 그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의 언약, 곧 그분이 그들을 이집트에서 이끌어 내실 때 그들과 맺으신 언약을 저버렸기 때문이다. 26 그들이 가서 자기들도 모르고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주시지도 않은 신들을 섬기고 숭배했기 때문에 27 여호와의 진노가 이 땅을 향해 타올라 그분이 이 책에 기록된 모든 저주들을 거기에 쏟아 부으신 것이다. 28 또 여호와께서 무서운 진노와 큰 분노로 그들을 그 땅에서 뿌리째 뽑으셨고 지금처럼 다른 땅에다 던져 버리셨으니 그것이 오늘과 같이 된 것이다.' 29 비밀스러운 일들은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속해 있지만 율법을 계시해 우리와 우리 자손들에게 영원히 있게 하신 것은 우리가 이 율법의 모든 말씀들을 따르게 하려는 것이다."

3 묵상하기

본문은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특권은 누리고 싶어 하면서 실제로는 백성답게 살지 않고 제멋대로 안일한 삶을 살던 이들을 향한 경고의 말씀입니다. 아무리 하나님의 백성이라도 언약을 무시한 채 살아간다면 언제든지 하나님의 진노를 받습니다. 이처럼 자기 좋은 대로, 자기 본능 대로 사는 삶이 당장은 즐겁고 만족스러울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렇게 마음껏 즐기며 살다 보면 어느새 보호자 없이 세상의 조롱거리가 되는 인생이 되고 맙니다. 믿지 않는 사람조차 그의 신앙을 손가락질하며 가짜 신앙인이었다고 평가할 것입니다(25-28절). 하나님의 백성은 이 세상에서 믿음으로 살아가며 주의 은혜가 얼마나 크고 엄청난 것인지를 보여주는 표본이 되어야 합니다. 주의 은혜가 아닌 주의 진노를 보여주는 표본이 되지 않도록 내 삶의 방향성과 정체성을 바로 잡는 오늘이 되기를 바랍니다.

4 적용하기

세상은 믿는 사람들을 주목합니다. 그러나 믿음이 있다는 사람도 눈에 보이는 것들에 흔들리고 무너져 가짜 신앙인이라고 손가락질을 받는 일들을 종종 봅니다. 이런 안타까운 현실 속에서 나는 어떤 신앙인이 되어야 할까요? 모든 상황, 모든 관계 속에서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나타내며 하나님의 살아 계심을 보여주는 믿음의 표본이 되기를 바랍니다.

5 생각하고 나누어보기 (각자의 삶을 서로 나눠 봅니다)

- ① 나는 하나님의 말씀이 나의 자유를 옳아맨다며 답답하게 생각하지 않았나요?
이제 말씀에 대한 나의 태도를 어떻게 바로잡을까요?
- ② 나의 주변 사람들은 나를 어떤 신앙인으로 평가할까요? 나는 세상에 아버지 하나님을 보여주는 믿음의 표본으로 살아가고 있나요?

6 기도하기

- ① 기도제목을 나누고 함께 기도합니다.
- ② 하나님의 뜻과 방법대로 살아가며 세상에 하나님의 살아 계심을 보여주는 자녀이기 원합니다. 예수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 ③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로 마칩니다.

1 찬양과 기도

- 찬양 : 새찬송가 527장 (어서 돌아오오)
- 기도 : 성령님께서 말씀으로 조명하여 주시길 기도합니다.

2 성경본문 (우리말성경)

회개할 때 회복시키시는 하나님

1 "내가 너희 앞에 둔 이 모든 복과 저주가 너희에게 임해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를 쫓아내셨던 모든 민족들 가운데서 그것들이 너희 마음에 생각나서 2 또 너희와 너희 자손들이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 돌아와 내가 오늘 너희에게 명령하는 모든 것에 따라 그분께 온 마음과 온 영혼으로 순종하면 3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를 사로잡힘에서 회복시키시고 너희를 긍휼히 여기셔서 그분이 너희를 쫓아내신 모든 민족들로부터 너희를 다시 모으실 것이다. 4 너희가 하늘 아래 가장 먼 땅으로 쫓겨 갔다 해도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거기서 너희를 모아 돌아오도록 하실 것이다. 5 그분은 너희를 너희 조상들이 차지했던 그 땅으로 데려 오실 것이고 너희는 그 땅을 차지하게 될 것이다. 그분은 너희를 너희 조상들보다 더욱 번성하게 하실 것이다. 6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 마음과 너희 자손들의 마음에 할례를 베푸시고 너희가 그분을 너희 온 마음과 온 영혼으로 사랑하게 하셔서 너희를 살게 하실 것이다. 7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를 미워하고 핍박하는 너희 원수들 머리 위에 이 모든 저주들을 두실 것이다.

순종할 때 받게 될 복

8 너희는 돌아와서 여호와의 음성에 순종하고 내가 오늘 너희에게 주는 그분의 모든 명령을 따르라. 9 그러면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 손으로 하는 모든 일과 네 몸의 열매와 너희 가축들의 새끼들과 너희 땅의 열매를 풍족하게 하실 것이다. 여호와께서 너희 조상들을 기뻐하셨듯이 너희 번영으로 인해 다시 기뻐하실 것이다. 10 너희가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 순종하고 이 율법책에 기록돼 있는 그분의 명령과 규례를 지키며 너희 온 마음과 너희 온 영혼으로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 돌아오면 그렇게 될 것이다."

3 묵상하기

사람은 연약하기에 번번이 다른 것에 눈을 돌리고 불순종하며 넘어집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백성에게는 다시 일어날 소망이 있습니다. 설령 죄로 인해 저주를 당했어도 다시금 회복할 수 있는 길을 하나님께서 열어두셨기 때문입니다. 다시 돌이켜 전심을 다해 그분을 찾고 순종하는 것이 그 비결입니다(2절). 주님은 흔들려 넘어지더라도 상처 속에서 다시 주를 찾는 자녀를 긍휼히 여기시고, 이전보다 더 큰 회복의 은혜로 채우십니다(5절). 혹시 하나님에게서 너무 멀어졌다는 생각에 회개는커녕 다시 돌아갈 엄두도 내지 못하고 있다면, 이 말씀을 듣는 지금 돌아가야 합니다. 주님은 내가 돌아오기만을 누구보다 손꼽아 기다리십니다. 진심으로 회개하고 마음을 돌이켜 하나님께서 열어두신 회복의 문으로 다시 들어갈 수 있기 바랍니다.

4 적용하기

누구나 넘어질 수 있습니다. 누구나 흔들립니다. 문제는 넘어진 자리에서 돌이키지 않는 데 있습니다. 지금 내 삶이 하나님에게서 너무 멀어져 있는 것을 느낀다면, 내 마음의 중심에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이 있음을 느낀다면, 지금 바로 돌이키기 바랍니다. 다시 말씀 앞으로 돌아와 나의 연약함을 인정하고 하나님을 간절히 붙들기 바랍니다. 그때부터 회복이 시작됩니다.

5 생각하고 나누어보기 (각자의 삶을 서로 나눠 봅니다)

- ① 참된 회개란 무엇일까요? 나는 깨닫고 뉘우치기는 하지만 돌이킴 없이 후회만 반복하고 있지는 않나요?
- ② 혹시 하나님께 돌아가기에는 너무 먼 길을 왔다고 생각하고 있지 않나요?
바로 지금이 회복시키실 하나님께 다시 돌아갈 최적의 시간은 아닐까요?

6 기도하기

- ① 기도제목을 나누고 함께 기도합니다.
- ② 넘어지고 실패해도 돌이킬 때 회복시키시는 나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예수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 ③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로 마칩니다.

• 찬양과 기도

- 찬양 : 새찬송가 23장 (만 입이 내게 있으면)
- 기도 : 하나님의 음성 듣기를 사모하는 마음으로 기도합니다.

• 성경본문 (우리말성경)

나와 아주 가까운 말씀

11 "내가 오늘 너희에게 명령하는 것은 너희에게 지나치게 어려운 것도 아니고 너희가 다다를 수 없는 것도 아니다. 12 그것은 하늘 위에 있지 않으니 너희는 '누가 하늘로 올라가 그것을 잡겠으며 우리에게 선포했다고 해서 우리가 순종하게 하겠는가?' 하고 물을 필요가 없다. 13 그것은 바다 밑에 있는 것도 아니니 너희는 '누가 바다를 건너가 그것을 잡겠으며 우리에게 선포했다고 해서 우리가 순종하게 하겠는가?' 하고 물을 필요도 없다. 14 오히려 그 말씀은 네게 아주 가까워 너희 입에 있고 너희 마음에 있어 너희가 순종할 수 있다.

내 앞에 두신 복과 저주

15 보라. 내가 오늘 너희 앞에 생명과 번성, 죽음과 멸망을 두어 16 내가 오늘 너희에게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고 그분의 길로 걸으며 그분의 명령과 규례와 율법을 지키라고 명령하고 있다. 그러면 너희가 살고 너희의 수가 많아질 것이며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가 들어가 차지할 그 땅에서 너희에게 복 주실 것이다. 17 그러나 만약 마음을 돌려 너희가 순종하지 않고 만약 너희가 멀리 나가 다른 신들에게 절하고 경배한다면 18 내가 오늘 너희에게 선언한다. 너희는 반드시 멸망할 것이며 요단 강을 건너 들어가 차지할 그 땅에서 오래 살지 못할 것이다. 19 오늘 내가 하늘과 땅을 증인으로 삼아 너희 앞에 생명과 죽음, 복과 저주를 두니 생명을 선택해 너희와 너희 자손들이 살고 20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고 그분의 음성에 귀 기울이며 그분을 단단히 붙들라. 여호와는 너희 생명이다. 그분께서 너희 조상 아브라함, 이삭, 야곱에게 주시겠다고 맹세하신 그 땅에서 너희가 살 것이다."

- **말씀읽기** 말씀의 내용이 무엇인지, 이 말씀을 통해 나에게 말씀하시는 것은 무엇인지 생각하며 읽습니다. (와 닿는 말씀을 아래에 적어보세요.)

최소 3번 읽기를 추천합니다.

- **묵상하기** 말씀을 통해 '자백해야 할 죄, 붙잡을 약속, 순종해야 할 명령' 등이 무엇인지 깊이 묵상하며, 아래에 적어보세요.

말씀에 비추어 나의 내면과 삶, 현재 상태 등을 구체적으로 돌아보세요.

- **적용하기** 오늘 꼭 실천할 나만의 슬로건을 만들어 보세요.
(행동으로 옮길 수 있는 구체적인 것으로 만들어봅니다.)

- **기도하기** 서로 기도제목을 나누고 함께 기도한 뒤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로 마칩니다.